



알림

새 봄 희망을 달린다

제45회 광주일보 3·1절 전국 마라톤대회

- 일시: 2010년 3월1일(월)
08:30~16:00 (폴코스 출발 09:00)
- 장소: 광주월드컵 경기장 → 남평교
- 종목: 폴코스, 하프코스, 10km, 5km
- 주최: 광주일보사,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 주관: 광주육상경기연맹, 전남육상경기연맹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kjmarathon.co.kr>) 참고 바랍니다

光州日報社

재래시장 살리자더니...

설 대목 코앞인데 광주 상품권 20억 어치 발행 지연 조폐공사 "인쇄물량 한꺼번에 몰려" ...능장대처 비난

"설이 코앞인데 재래시장 상품권을 구성조차 할 수 없어요."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발행되는 '은누리 상품권'이 전통시장에서 자취를 감췄다. 설 대목을 11일 앞둔 2일 광주 시내 전통시장 상인들은 "올해 상품권이 아직까지 발행되지 않고 있다"며 불멘소리를 내었다.

이날 광주시와 상인들에 따르면 시가 중소기업청과 연계해 전국 740여개 전통시장에서 통용되는 은누리 상품권을 1월 말까지 발행키로 하고 전국상인연합회에 20억 원어치를 요청했다. 이 상품권은 그동안 지자체가 발행하던 재래시장 상품권과 중소기업청이 발행하던 은누리상품권이 통합된 것으로 광주지역에서는 광주은행과 새마을금고에서 구매가 가능하다. 특히 중기청은 은누리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개인 구매시 3% 할인도

해주고 있다. 그러나 1월말까지 요청했던 은누리 상품권이 아직까지 발행되지 않고 있다. 광주시가 설 특수를 바라고 발행요청을 했지만 상품권 인쇄를 담당하고 있는 조폐공사에 다른 인쇄물량이 몰리면서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조폐공사는 오는 10일께에나 광주 물량의 인쇄가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시가 이번 설에 선물용으로 3억 원어치를 판매하려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처지에 놓였다. 특히 전통시장에서 상품권을 사용하는 고객은 상품권의 4배 이상 현금도 쓰는 경우가 흔해, 상인들의 아쉬움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당초 전통시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에 설 선물용 은누리 상품권 구입을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또 '1사 1시장',

'1대학 1시장' 자매결연 등도 추진해 상품권 구매를 늘릴 방침이었다. 하지만 은누리 상품권 발행이 늦어지면서 광주시의 설 특별 판매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 관계자는 "전통시장 상품권은 설과 추석 때 가장 많이 판매된다"며 "설 특수를 기대해 1월 말까지 발행을 요청했지만 조폐공사 사정으로 아직까지 발행되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광주시전통시장상인연합회 김영호 회장이 "상품권을 들고 시장을 찾은 고객들이 현대화된 시설과 저렴한 가격에 반해 단골이 되는데, 아쉽다"면서 "올해 은누리 상품권 발행이 늦춰지면서 지난 추석보다 상품권 거래가 현저하게 줄었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공천방식 혼선·교육자치법 개정 지연 속 선거운동 시작

공 울렸는데 물은 아직...

6·2 지방선거를 120일 앞둔 시·도지사 및 시·도 교육감 예비후보자 등록이 일제히 시작되면서 지방선거전의 막이 올랐다. 하지만 민주당 등 정당의 공천방식이 정해지지 않은데다 지방교육자치법이 개정되지 않아 후보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관련기사 3·4·5면〉

이날 광주시선관위에 광주시장 출마를 위한 예비후보 등록을 한 민주당 정동채 전 문화관광부 장관, 양형일 전 국회의원, 윤난실 진보신당 광주시당 위원장, 무소속 정찬을 전 청와대 인사수석 등은 곧바로 거리로 나가 어깨띠를 하고 명함을 돌리며 지지자 호소했다. 이석형 전 함평군수도 전남도

선관위에서 전남지사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유권자 접촉에 나섰다. 시·도 교육감 출마에 나선 이정재 전 광주교대 총장, 김영수 광주교육발전연구소장, 탁인석 전 광주대학교 수, 서기남 전남교육위원, 신태환 전 여수교육청 교육장, 김경택 동아인재대학 총장 등도 예비후보 등록과 함께 선거전에 돌입했다.

하지만, 시·도교육감과 교육의원 임지자는 교육자치법 개정안 지연으로, 민주당 시·도지사 후보군들은 공천불이 확정되지 않아 각각 혼란을 겪고 있다.

선관위는 지난달 22일 각 선거에 대한 선거비용 제한액을 공표했으나 교육의원 선거만은 지방교육자치법이

개정되지 않아 2일 현재까지 제한액을 공고하지 못했다. 나아가 교육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오는 19일 까지도 이 법이 처리되지 못하면 교육의원 출마자들은 예비후보 등록을 할 수 없어 선거운동의 기회가 원천봉쇄된다. 후보들은 더욱이 직선인지 비례대표제인지 등이 정해지지 않아 선거운동 준비를 아예 포기한 지 오래다.

경쟁이 가장 치열한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 경선전의 경우 시민공천배심원제가 도입되는지, 도입되면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는지, 언제까지 규칙이 정해지지는 등 어느 것 하나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고 있어 7명의 입지자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민주당 전남도당 관계자는 "매일 도당 사무실에서 교육자치법 개정안 처리 상황과 내용, 시·도지사 공천불을 묻는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며 "국회나 정당에 하루빨리 게임규칙을 정해서 후보자들의 혼란을 막아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최권일기자 jkpark@

DJ 묘역 방화 추정 화재

서울 동작구 동작동 국립현충원의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에서 방화범의 소행으로 의심되는 화재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국립현충원과 서울 동작경찰서에서 따르면 2일 오전 9시30분께 김 전 대통령 묘역 뒤편 언덕의 잔디 일부가 불에 탄 모습이 발견됐다.

현충원 관계자는 "묘역을 청소하던 직원이 불탄 흔적을 처음 발견했다"며 "오늘 오전 9시10분 순찰할 때까지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으며, 불이 난 장소는 폐쇄회로(CC) TV에 포

착되지 않아 정확한 화인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라고 전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이날 오전 9시10분부터 10시 사이에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조사 중이다. 경찰은 화재 현장 부근에서 김 전 대통령을 친공산주의자로 표현한 한 보수단체 명의의 전단이 발견된 점 등을 들어 이번 화재가 방화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김 전 대통령 측은 이날 화재에 대해 "부끄럽고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연필뉴스



"이제 사회로 나가요"

졸업생들이 환한 미소를 짓고 있다.

대학생들의 취업 전쟁이 어느 때 보다 치열한 가운데 2일 오전 광주 기독교호 대학 진리관에서 열린 '2009학년도 학위 수여식'에서 일찌감치 취업을 확정지은 졸업생들이 환한 미소를 짓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KIA 타이거즈

새 유니폼·엠블럼



KIA 타이거즈가 2010시즌부터 새 유니폼을 입는다.



KIA는 2일 새로 바뀐 유니폼과 엠블럼을 선보였다. 유니폼은 역동성과 부드러운 느낌을 가미한 로고체의 워드마크를 채용했다. 홈 유니폼 상의는 선수들의 요청에 따라 버튼형 대신 브이네 스타일로 제작해 활동성을 높였다. 원정 유니폼은 스트라이프 바지를 홈 바지처럼 심플하게 제작했고, 원정 언더웨어 역시 검은색에서 'TIGERS DARK BLUE'로 변화를 줬다. 모자는 기존의 빨간색에 새롭게 바꾼 구단 이니셜 로고를 새겼다. 엠블럼도 바뀌었다. 야구공 바탕에 새 워드마크를 배치해 활력 넘치는 모습을 표현했다. 이니셜 로고 'T'는 호랑이의 용맹스러움을 담기 위해 날카로운 발톱과 이빨을 표현했다. /김여용기자 wool@kwangju.co.kr

謹賀新年

희망찬 새해, 감사의 마음 - **금강상품권**

하나의 상품권으로 30여가지 다양한 브랜드를 만나세요!

주는 즐거움, 받는 기쁨 - 금강상품권 전국 어디서나 1588-8877

www.kumkangmail.com

REGAL, BALenciAGA, ESPRIMO, Renoir, renoma, Clarks, LANDROVER, Timberland, Bulko, HH, Koalabi, BioSOF, 금강제와